DAY 36–45 · 4부 조심할 것

# 4부 총정리 — 조심할 것

내 정보 지키기부터 AI의 법까지 · 설명 한 겹 더 · DAY 36-45

factnotes

시험 없음 — 읽고 넘어가는 복습 자료

# 넣는 순간 내 손을 떠난다

1. AI에 넣은 말은 넣는 순간 내 손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해.

2. 이름·주소·전화번호처럼 **나를 콕 집어낼 것**만 빼면 답은 똑같이 나와.

3. 친구 얼굴이나 친구 번호는 내가 올릴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.

# 조각은 합쳐질 때 나를 가리킨다

1. '중3 남학생' 하나로는 수십만 명이야.

2. 학교와 반이 붙으면 서른 명이 되고, 학원 시간까지 붙으면 **한 명**이 돼.

3. 개인정보보호법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봐.

# '베꼈다'는 말에 칸이 하나 늘었다

1. 예전에는 '베꼈다'를 결과물이 얼마나 닮았는지로만 따졌어.

2. 이제는 **만들기 전에 무엇으로 배웠나**까지 쟁점이 돼.

3. 나라마다 답이 다르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, 외울 게 아니라 쟁점을 알아 둬야 해.

# 따질 칸이 하나 늘었을 뿐이야

1. 왼쪽 기준이 사라진 건 아니야 — 닮은 결과물은 지금도 그대로 문제야.

2. 오른쪽에 **배움에 쓴 자료**라는 칸이 새로 생긴 거야.

3. 그래서 결과물이 안 닮았는데도 다투는 일이 생겼어.

# 눈으로는 못 가린다 — 출처로 가린다

1. 눈으로 봐서는 못 가려 — 손가락 개수를 세라던 옛 요령은 거의 안 통해.

2. 화면 속을 뜯어보는 대신 **어디서 왔는지**를 따라가.

3.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나, 다른 사람이 찍은 것도 있나를 보면 돼.

# 안 통하는 단서와 지금 쓰는 단서

1. 안 통하는 쪽은 다 화면 안을 보는 방법이야 — 손가락, 눈 깜빡임, 화질.

2. 지금 쓰는 쪽은 다 **화면 밖**을 보는 방법이야 — 출처, 다른 각도, 급한 요구.

3. 화면 안은 갈수록 완벽해지니까, 눈을 화면 밖으로 옮기는 게 맞아.

#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 있는 것

1. AI는 마음먹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.

2. 배운 자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**답도 그쪽으로 기울** 뿐이야.

3. 그러니 사람을 나누거나 고르는 질문엔 '다른 경우는?'을 한 번 더 붙여.

# 2018년에 실제로 재 본 결과

1. 얼굴 사진으로 남녀를 맞히는 프로그램들을 피부색과 성별로 나눠 검사했어.

2. 틀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**피부색이 어두운 여성 얼굴**이었어.

3. 가장 낮았던 건 피부색이 밝은 남성 얼굴이었어.

# 밝히는 한 줄은 내 몫을 지키는 울타리

1. AI를 썼다고 밝히는 건 자수가 아니라 이름표야.

2. 안 밝히면 **내가 잘한 부분까지** 같이 의심받거든.

3. 과제를 조각으로 쪼개고, 조각마다 누가 했는지 한 줄만 적으면 끝이야.

# 한 줄을 쓰는 법

1. 과제를 주제 정하기·자료 찾기·초안 쓰기·다듬기·사실 확인으로 쪼개.

2. 조각마다 내가 했는지 AI가 했는지 표시해.

3. '어느 조각을, 어떻게 썼고, 내가 뭘 고쳤는지' **이 세 가지**면 한 줄이 완성돼.

# 끝났을 때 내 머리에 뭐가 남았나

1. 기준은 긴 규칙집이 아니라 한 문장이야 — 끝났을 때 내 머리에 뭔가 남았나.

2. 통째로 시키면 **결과물만 남고** 나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.

3. 막힌 데만 물어보고 내가 다시 쓰면 결과물도 남고 실력도 남아.

# 숙제 앞에서 밟는 네 걸음

1. 숙제를 받으면 먼저 '뭘 배우라는 걸까'를 생각해.

2. 그다음 5분이라도 내 머리로 해 봐.

3. 막히면 **답 말고 실마리로** 묻고, 마지막은 내 말로 다시 써.

# 가려내는 건 눈썰미가 아니라 순서

1.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건 눈썰미가 아니라 순서야.

2. 누가 처음 말했나, 언제 일인가, 다른 곳에도 있나 — **이 셋만** 차례로 봐.

3.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거기서 멈추면 돼. 멈추는 것도 판단이야.

factnotes

# 세 칸을 지나가는 데 1분

1. 첫 칸은 출처 — 처음 말한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.

2. 둘째 칸은 날짜 — 옛 일이 지금 일처럼 돌아다닐 때가 많아.

3. 제일 힘이 센 건 셋째 칸 — **다른 곳이 따로 취재해 같은 말을 하나**.

# 끊고, 내가 아는 번호로 내가 다시 건다

1. AI를 쓴 사기는 늘 같은 순서야 — 흉내 내고, 아는 척하고, 급하게 몰아치고, 요구해.

2. 막는 법은 싱거울 만큼 간단해 — **일단 끊고, 내가 아는 번호로 내가 다시 걸기**.

3. 진짜 가족이면 다시 걸어도 아무 일 안 생겨.

# 사기가 노리는 셋, 그걸 깨는 셋

1. 사기는 아는 목소리, '지금 당장'이라는 급함, 혼자 결정하게 만들기를 노려.

2. 셋을 하나씩 뒤집으면 돼 — 끊고 다시 걸기, 한 박자 쉬기, 옆의 어른에게 말하기.

3. 진짜인지 귀로 가려내려 하지 마 — **연락하는 방향을 내가 바꾸는** 게 쉬워.

# 맡기는 비율을 내가 정하고 있나

1.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— 맡기는 비율을 내가 정하고 있느냐가 전부야.

2. 0도 100도 아니고, **남는 게 제일 많은 자리는 가운데**야.

3. 먼저 5분은 내 머리로 해 보고, 그다음에 맡기면 돼.

# 2025년에 실제로 재 본 것

1. 글쓰기로 실험한 연구팀이 AI에 많이 맡긴 쪽을 살펴봤어.

2. 그쪽은 **자기가 방금 쓴 문장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**고 보고했어 — 글은 멀쩡했는데.

3. 아직 검토 중인 예비 연구니까 결론처럼 외우진 말고.

# 위험한 정도에 따라 칸을 나눈다

1. AI에도 법이 있어. 그런데 모든 AI를 똑같이 다루지는 않아.

2. 쓰임이 **위험한 정도에 따라 칸을 나눠** 규칙을 다르게 걸어.

3. 우리나라 AI 기본법도 2026년 1월에 시행됐어.

# 네 칸으로 갈라 놓은 유럽연합 AI 법

1. 아예 금지 · 고위험 · 알림 필요 · 최소, 이렇게 네 칸이야.

2. 금지 칸은 쓰는 것 자체가 막히고, 고위험 칸은 검사를 통과하고 사람이 감독해야 해.

3. 알림 필요 칸은 **AI라고 밝히기**, 최소 칸은 특별한 규칙이 없어.

# 넣기 전에 한 번, 믿기 전에 한 번,
# 맡기기 전에 한 번 — 그게 4부야.



5부에서는 안을 들여다본다.